

지역 매아리

부안군, 잼버리 서포터즈 모집

부안군은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인 개최준비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을 중심으로 잼버리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부안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제1기 2023 부안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 동안 잼버리와 관련된 다양한 군정소식, 언론보도, 행사참여 등의 방식으로 각종 내용을 개인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과 쌍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SNS 활동과 취재가 가능한 부안군민이면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위촉장과 활동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9월 23일 개별 통보한다.

자재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잼버리운영팀(063-580-4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내달부터 민간위탁 운영

정읍시가 내달부터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

시는 지난 27일 사단법인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이사장 이봉렬)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사업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추진방법의 구체성 등 9가지 항목을 심사해 사단법인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내달부터 2년간이다.

위탁사무는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활동가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지역 향토자원 발굴·조사·관리와 사업화 ▲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의 선정·집행·분석·평가와 우수사례 홍보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마을 축제 추진 등이다.

더불어 ▲사업주체, 기업, 국내외 자원센터 등과 네트워크사업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교류 협력과 학술대회 운영 ▲지역 공동체 이력을 위한 공공형 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다위 정책개발 지원 ▲시민청인대화운영 ▲그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통으로 더불어 행복한 정읍

시, 언론인 정례브리핑 가져... 총무과 업무별 주요 성과·추진계획 상세히 소개

정읍시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서종원 총무과장이 과 관할 6개 팀의 업무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종원 과장은 브리핑에 앞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누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총무과의 업무별 주요 성과와 이후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행복한 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2019 시민과의 대화와 출향인과 함께하는 정읍방문의 해 운영, 읍·면·동민의 날 출향인 초청 실버 지원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는 구절초 꽃축제와 정읍사 문화제, 정읍시민의 날 등 정읍 대표 행사에 출향인을 초청해 출향



정읍시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인의 애환심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선진 노사문화 정착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 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서 과장은 "총무과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신뢰받는 섬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

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시청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례브리핑은 시장방향·역점시책·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국·단·실과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브리핑은 문화행정국 핵심 현안과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 단속 실시

정읍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추석 연휴 기간 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에 나섰다. 이번

감시활동은 추석 연휴 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에는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특별점검반 3개 반(6명)을 편성해 도축·가공업체 등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 및 다량배출사업장, 축사 시설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대

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를 24시간 운영한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의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후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가동중단 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 정상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행복학습센터 운영... 다양한 평생교육 제공

고창군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에 나섰다.

29일 고창군은 '고창행복학습센터'로 '고창장애인복지관'과 '뚝곡요'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원하는 경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을 의미한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에선 학령기 이후 교육 복지에서 소외받기 쉬운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천연염색 프로그램은 지역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에서 얻은 오색빛깔 천으로 가방, 베게, 이불, 등 등을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을 얻고, 연말에는 작품전과 베품시장 등도 계획하고 있다.

바리스타 자격과정도 기본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및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준봉 도예 명인이 활동하고 있는 '뚝곡요'에서도 '도예 체험학습 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인프라 확충 위해 머리 맞대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개최

부안군은 2019년 제3차 새만금지원협의회(위원장 이영택)를 2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만금 사업관련 설명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1단계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 이후 새만금개발청의 MP 변경 추진에 따라 현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MP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총 22건의 현안 및 신규사업의 MP 변경 요구와 신규사업 발굴부분으로 구별해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가 현재 부안군 마을에 인접해 있어 주민에게 영향을 비교적 덜 주도록 적

정거리를 확보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시 생계터전을 상실한 부안군민을 위해 사업용량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점, 장산배수지 건립사업에 국비를 조속히 확보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점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위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영택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새만금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오는 9월 중에 직접 방문할 계획으로 전 위원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부족한 새만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의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을 위해 '아빠가 임신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빠가 임신했어요'

고창군 가족센터, 예비 부모 위한 특별한 경험 '큰 호응'

임신의 고달픔, 출산의 소중함, 아내에 대한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화제를 모았다.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대원 스님, 이하 가족센터)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을 위해 지난 28·29·27일 총 3차례에 걸쳐 '아빠가 임신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남편이 임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센터는 임신 6~7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 체험복을 대여해 남편들이 주말 동안 체험복을 입고

실제 임신부처럼 생활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아빠는 "임신부 체험복을 입고 생활해보니 아예, 허리, 팔, 다리 안 이쁜 곳이 없다. 이제라도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 출산 때까지 더 잘 챙겨줘야겠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다.

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안해자 팀장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면서 '아빠가 임신했어요'를 비롯해 새롭게 진행되는 흥미로운 가족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교육, 체험, 상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a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